

익산 여성친화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익산여성친화도시 스토리텔링북



익산 여성친화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익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간 익산은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수많은 후발도시들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익산이 이뤄온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들이 새로운 여성친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 또한 하루아침에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민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을지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자하는 의지들이 모여 마침내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오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의 ‘어제’, 즉 익산의 긴 역사 속에도 시대를 앞서갔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성들의 삶이 담긴 기록이야말로 익산이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명의 여성을 이 책 속에서 다시 만나보고자 합니다. 무왕과 함께 백제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선화공주>, 그리고 비운의 왕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성들의 삶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옮기려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전해져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되,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 이 여성들이 각기 주어진 시대적 상황과 스스로에게 놓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여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내일’이자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숙제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책이 ‘스토리텔링북’ 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익산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담아보았습니다. 딱딱한 소개가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화’라는 인물의 상황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만들어온 ‘어제’의 여성과 ‘오늘’의 여성을 만나려합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일’의 익산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할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행복, 가정의 행복, 모두의 행복이 펼쳐지는 **익산**

최초의 다문화여성 선화, 화합으로 새 시대를 열다.

- 서동요, 신라를 뒤흔들다
- 스스로 궁을 나서다
- 서동을 만나다
- 황금의 땅 익산을 만나다
- 사택비를 간택하다
- 선화, 미륵의 세상을 꿈꾸다

고난에 맞선 정순왕후, 여성의 참여를 이끈다.

- 영원히 가신 다리, 영도교(永渡橋)
- 열다섯 나이에 왕비가 되다
- 숙부, 조카의 왕위를 노리다
- 왕에서 상왕으로, 다시 노산군으로
- 동망봉의 울음소리는 동정곡으로 울려 퍼지고
- 여인들, 여인을 위한 시장을 만들다

여성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입니다

- 도시, 여성의 삶
-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생활, 너무 힘들어요
- 선화 씨가 꿈꾸는 도시
- 여성친화도시, 여성만을 위한 도시?
- 익산은 '왜' 여성에 주목했을까?
-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탄생

◎ 익산의 여성친화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노약자 이동이 편리한 공간 조성〉

- 공원을 여성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여성을 위한 콜택시
- 화장실 이용이 편리해졌어요.
- CCTV는 '안심도시'의 첫걸음
-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을 위한 배려 공간, 여성우선주차장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도시〉

-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 야근 걱정 끝!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서 해결해요
- 여성농업인의 힘! 농촌을 바꿉니다.
- 여성일자리를 찾아줍니다!
- 스포츠를 통한 사회 참여, 여성체육대회
- 여성영화제작에 도전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도시〉

- 아빠와 함께 하는 도서관
- 행복한 임신! 모두에게 산전 검사비 지원
- 다문화 소통의 마당을 엽니다.
-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요.
- 쾌적하고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양성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익산〉

- 익산의 주요 사업 여성친화 관점으로 컨설팅!
- 양성평등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요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내일

- 여성친화도시 파트너, '여친남친', '조성 협의체'
- 익산, 그 곳에 살고 싶다!



최초의 다문화 여성 **신화**

화합으로 새 시대를 열다





서동요, 신라를 뒤흔들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 그리고 그 서라벌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신라의 왕궁 안에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선화가 살고 있었다.

선화의 미모는 워낙 뛰어나고 아름다워 신라는 물론 이웃나라에 까지 소문이 자자했고, 신라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선화를 신라의 보물이라 추켜세우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선화는 미모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왕궁의 대전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 대왕마마… 실은 아뢰올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백성들 사이에서 선화공주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전에 모인 신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진평왕에게 고하였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시집을 가서 밤마다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도성밖에 짝 퍼져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단 말이나?”

진평왕은 몹시 놀라며 물었다.

“이 소문은 어떤 자가 아이들을 통해 퍼뜨린 듯한데, 그렇게 시작된 소문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퍼져서 이제는 모르는 백성이 없을 정도입니다.”

진평왕은 몹시 화가 나서 대신들에게 소리쳤다.

“상황이 이렇게 치닫도록 어떻게 나에게 알리지 않았단 말이나! 도대체 어떤 자가 신라 왕실을 우습게 보고 그런 노래를 퍼뜨렸단 말인가? 당장 그 자를 잡아들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밝히도록 하라.”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 하였지만 찾지 못했다 하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통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후 신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도주한 듯하옵니다. 또한 그 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문은 첩첩산중에 까지 퍼져 있어 건잡을 수가 없사옵니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쫓는 것도 중요 하나, 공주마마께서는 왕실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죄를 물으셔야 마땅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대신들도 하나 둘 앞에 나서 진평왕에게 고하였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고 있사옵니다. 공주마마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이라는 백성들도 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고 본다면 백성들이 왕실을 우습게 여겨, 신라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신라 왕실을 우습게 볼 것이니, 하루 속히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평왕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공주마마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뭣이라. 공주를 내쫓으란 말인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들은 선화공주의 행실을 의심하여 성토했고, 선화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진평왕 역시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용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당장 선화를 데려와라.”



스스로 궁을 나서다



“저… 대왕께서 공주마마를 급히 찾으십니다.”

선화를 찾아온 내관은 몸 둘 바를 모르며 선화에게 말했다. 선화는 읽고 있던 시경을 덮고 일어섰다.

내관이 먼저 종종 걸음으로 문을 빠져나갔다. 선화는 무슨 일인지 싶어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내관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잠시 후, 선화가 도착한 곳은 왕궁의 대전이었다. 신하들은 선화가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힐끔힐끔 눈치를 살폈다. 몇몇은 화난 표정으로 노려보기도 하였고 또 몇몇은 고개를 돌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선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바마마, 소녀 선화입니다. 아바마마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진평왕은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는 선화에게 다짜고짜 큰 소리로 다그쳤다.



“대체 서동이 누구인가? 공주는 사실대로 말하라!”

진평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선화는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진평왕은 평소 선화공주에게 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다. 딸만 셋이었던 진평왕은 딸들에게, 특히 막내였던 선화에게 가장 따뜻한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선화의 눈에 비친 진평왕의 모습은 선화로서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바마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소녀는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시는 서동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웁니다.”

“정말 모른단 말이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무언가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도성 안과 밖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데, 너하고 나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선화는 바론대로 고하지 못할까!”

대전이 금방이라도 떠나갈 듯한 목소리였다. 노한 진평왕의 목소리에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화는 진평왕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이내 대신들을 향해 소리쳤다.

“대신들께서는 서동이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어찌하여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대신들은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선화의 눈을 피하려 고개를 더욱 숙였다.

“아바마마와 저는 모르는 일이온대 대신들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 하니 여쭙겠습니다. 서동이 대체 누구입니까? 어디에 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랍니까? 아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나와 아바마마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 역시 아바마마는 물론, 대신들께 무릎을 꿇고 죄를 빌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말씀



하세요!”

선화의 말에 대신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고 연신 헛기침 소리만 낼 뿐이었다.

“아바마마, 이것은 저에 대한 모함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라와 신라 왕실을 혼란시키려는 목적만큼은 분명합니다.”

선화는 당당한 목소리로 진평왕과 대신들에게 말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당찬 목소리였다.

“선화야, 분명 네 말이 사실이나?”

선화의 당당한 모습에 화가 다소 누그러든 진평왕은 선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때 한 대신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진평왕에게 고했다.

“대왕마마… 하지만 이 일은 이미 견잡을 수 없이 커졌사옵니다. 당장 공주마마의 죄를 따져 묻지 않으신다면, 타락한 왕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민심이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공주님께서 무고함을 주장하신다 하여도 민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선화공주님을 신라의 보물이라 떠받들던 민심은 이번 일로 왕실에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던 대신들은 한 대신이 앞에 나서자 이에 힘입어 진평왕을 향해 넙죽 엎드려 고하였다.

“음… 이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진평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귀하게 키운 막내딸 선화였다. 하지만 정체도 알 수 없는 적에게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당했



다는 분노와 선화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진평왕은 고뇌에 빠졌다.
 “아바마마. 소녀는 무고하옵니다. 저는 신라의 공주로서 단 한 번
 도 왕실을 욕되게 하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소녀가 궁을 나가겠사
 옵니다.”

선화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진평왕에게 전했다. 선화의 말을 들
 은 진평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이나. 네가 궁을 나가겠다니…?”

“자고로 죄를 지은 왕족은 그 지위를 박탈하고 궁 밖으로 추방하
 는 것이 엄연한 이치이옵니다. 소녀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스스
 로 궁을 나가 신라 왕실은 물론, 신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옵니다.”

“정녕…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나…?”

“아바마마께서 소녀의 무고함을 알아주신다면 저는 여기에 있는
 대신들은 물론이요, 백성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충분하
 옵니다. 대신들이 죄인을 잡아들이지 못하여 진상과악도 하지 못
 하는 지금으로서는 소녀가 물러나 있는 것만이 한 나라의 왕이신
 아바마마에게 누가 되지 않는 길이옵니다. 그러니 소녀의 청을 받
 아주시옵소서.”

진평왕은 선화의 말에 한동안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들
 역시 서동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자신들의 죄는 숨기고 무조건 선
 화의 탓으로만 돌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
 했다.

진평왕은 왕좌에 오른 이래, 이 순간만큼 스스로의 무력함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진평왕은 오랜 고민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
 들을 향해 소리쳤다.

“들거라! 선화공주는 큰 죄를 지어 왕실을 더럽혔으니 더는 왕족



이 아니다. 지금 당장 공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궁 밖으로 내 쫓아 그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여라.”

선화의 뜻을 받아들여 어려운 결정을 한 진평왕은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선화공주는 진평왕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후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토록 당당하던 선화의 눈에도 어쩔 수 없는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동을 만나다



선화는 처소로 돌아와 집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때 선화가 궁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알게 된 왕비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선화야, 이게 어찌된 일이나. 네가 어째서 궁을 나간단 말이나?”
 “어마마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궁을 나가지 않는다면 신라 왕실은 물론 신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도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평생을 궁에서 지낸 네가 어떻게 이 어미도 없이 궁을 나가서 살 수 있단 말이나.”

“걱정하지마세요. 저는 궁 밖을 나서는 즉시 방도를 찾을 거예요. 일단 서동이라는 자를 찾아 이 사태를 해결할 방도를 마련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나?”

눈물을 흘리던 왕비는 선화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필시 이러한 일을 꾸민 자는 무척이나 비범한 사람일 거예요. 저를 모함했다는 노래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오나 노인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신라의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라면, 민심을 동요시키는 일이 승리의 전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겠지요. 분명 민심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꼭 만나봐야겠어요.”

“선화야,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게 될지 걱정이구나. 그러지 말고 당분간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예요. 그 자를 꼭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 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필시 이런 일에는 연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것이라면 저로 끝날 일이 아닐지 몰라요. 저 다음에 왕실 사람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쓸지 몰라요. 제가 궁을 나서는 이유도, 그 자를 만나보고 싶은 연유도 모두 그 때문이에요.

“네 뜻은 잘 알겠다. 더 이상 널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슬프구나. 대신 잠깐만 기다려라.”

왕비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 나갔다. 이내 왕비는 얼핏 보아도 커다란 상자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돌아왔다.

“선화야, 이것은 황금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잘 가지고 있다가 어려울 때 쓰도록 하



여라.”

선화는 보자기를 들고 군사들과 함께 왕궁을 나섰다. 선화가 궁 밖으로 나오자 잠시 후 궁궐의 문이 굳게 닫혔다.

선화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선화는 소매로 눈물을 쓱 닦아낸 후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서동이란 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허나 서동이라는 자가 실제 인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일단 나를 모함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다.’

선화는 서라벌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침 장이 들어선 날이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어느 골목에서 자연스럽게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가 놓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뛰어 놀고 있었다. 선화는 천천히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선화가 다가오자 노래를 멈추고 선화를 바라보았다.

“애들아, 누나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그 노래 어디에서 들었니? 참 재밌는 노래 같은데…”

“아, 이 노래요? 얼마 전 이 거리에서 어떤 형이 마를 나눠주면서 가르쳐줬어요.”



“맞아요, 나도 그 형한테 배웠어요.”

“그렇구나. 무척 재미있는 노래네. 선화공주님이 시집을 갔다 니… 미안한데 이 누나한테 다시 한 번 들려줄래?”

아이들은 아름다운 선화의 부탁에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선화는 아이들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이 형이라 부르는 것을 보니 나이는 많지 않은가 보구나. 그렇다면 내 또래쯤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주며 노래를 가르쳤으니 그리 부유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아이들이 일제히 형이라 지목하니 여럿이 아닌 혼자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 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다.’

선화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지긋이 바라보았다. 정작 선화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선화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 그 자가 나를 노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 앞에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그 때, 선화를 향해 한 청년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광채가 나는 환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띤 청년이었다. 선화는 유심히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아이들이 소리쳤다.

“누나, 이 형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은 선화는 깜짝 놀라며 다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청년은 선화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공주마마,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공주마마? 이 누나가 공주마마야?”

아이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신이 내가 찾는 사람인가보군요. 허나 여기에서는 말을 나누기가 어려우니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앞장서시지요.”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청년은 선화를 데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향했다.

“보잘것없지만 시장하실 거 같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공주마마.”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그러니 공주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화는 단호하게 말하는 청년의 태도에 짐짓 놀랐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궁을 나왔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그런 괴상한 노래를 퍼트렸는지, 나를 곤경에 빠뜨려서 얻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자 궁을 나왔단 말입니다. 궁 안에서는 당신의 칼끝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신리를 향한 것인지 알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연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궁을 나왔다는 선화의 말에 깜짝 놀랐다. 분명 왕과 대신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청년은 이내 말문을 열었다.

“저는 백제에서 온 서동이라 하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서동이 바로 저입니다.”

서동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선화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신이 서동이라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 자신의 이름을 노랫말에 넣어 퍼뜨리다니… 참으로 배포가 대단하군요. 모두들 서동이라 칭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기에 그저 노랫말을 빗대어 서동이라 부른 것인데…”

“그 노래 그대로입니다. 저는 백제에서 어머니와 함께 마을 캐서 살아가고 있으나, 본래 서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그런 찰나에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공주님을 감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서라벌에 왔으나 공주님께서는 궁궐에 계시니 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을 뵈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노래를 지어 퍼뜨린 것입니다. 공주님,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무모하고 무례한 사람이군요. 내가 궁을 나오기도 전에 당신은 잡힐 수도 있었고, 내가 이대로 당신을 고발하러 관아를 향할 수도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리 당당한가요?”

선화는 언성을 높였으나 서동의 사내다운 기백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서동은 만면에 가득히 웃음을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저는 뜻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선화공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비록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제 바람이 이루어졌으니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동의 단호하고 비장한 말에 선화는 순간 가슴이 떨렸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이 남자, 더구나 신묘한 계략으로 신라 왕실과 신라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의 지혜와 배포를 가진 이 남자. 선화의 눈에는 서동이라는 이 범상치 않은 사내가 어느 새 남자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선화는 이미 차게 식은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공주의 입맛에 맞을 리 없을 텐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는 선화의 모습을 보고 있던 서동의 얼굴에도 점차 환한미소가 떠올랐다.



황금의 땅 익산을 만나다



서동을 따라 백제로 온 선화는 제일 먼저 서동의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다. 서동의 어머니는 매우 인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어머님, 선화라고 하옵니다.”

선화의 인사를 받던 서동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신라의 공주를 며느리로 들이게 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주마마께서 견뎌내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서동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선화는 정중한 음성으로 단호히 말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 곳 백제에서 어머님과 서방님을 잘 모시고 살 거예요. 저는 이제 신라의 공주가 아니라, 어머니의 며느리이자, 서방님의 아내예요. 부디 어려워 마시고 며느리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제야 서동의 어머니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선화의 손을 맞



잡았다.

“우리 생활이 넉넉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잘 살자구나.”

선화는 한쪽에 두었던 보자기를 풀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거라면 우리 세 식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나?”

서동의 어머니가 물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동은 보자기 속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고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황금이군요. 내가 마를 캐던 곳에 잔뜩 널려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안내해주세요.”

서동은 어릴 적부터 마를 캐던 산 속으로 선화를 데리고 갔다. 그때까지도 선화는 서동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서동의 말처럼 황금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선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이 귀하디 귀한 황금이 어째서 이곳에는 지천으로 깔려있단 말인가…. 대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토록 땅의 이로운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필시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한 땅이지 않은가.’

선화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동에게 말했다.

“이 황금 중에 일부를 신라 왕실에 보내면 어떨까요?”

“신라 왕실에 말입니까?”

“만일 서방님께서 이 황금을 아바마마께 보낸다면, 아바마마께서도 서방님의 힘을 알아보고 사위로 인정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 곳 백성들도 서방님을 우러러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옮길 수는 없으니 내일 용화산 사자사에 계신 지명법사님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서동과 선화는 다음 날 사자사를 찾아가 지명법사를 만났다.

“스님, 이 황금들을 신라 궁궐로 옮기고 싶는데 스님께서서는 법력이 높아 가능하시다 들었습니다.”

“신라 궁궐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해드리지요. 저녁까지 절 앞마당에 보내실 황금을 쌓고 편지를 함께 써서 올려놓으시면 제가동이 트기 전까지 옮겨드리겠습니다.”

지명법사는 흔쾌히 서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선화공주님께서서는 잠시 소승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으면 합니다.”

선화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는 지명법사의 말에 크게 놀랐다.

“선화공주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서동이 자리를 비켜주자 지명법사는 선화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드디어 공주님을 만나 뵈게 되니, 소승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황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땅은 땅의 이로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필시 왕도가 되어 국가가 뿌리를 내리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땅이지요. 이제 이 땅은 공주님을 만나 비로소 땅의 이로움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은 이제 공주님과 서동에게 큰 권력이 되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늘의 뜻, 즉 백성들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였을 때, 마침내 태평성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명법사의 말을 들은 선화는 그제야 자신이 왜 신라를 떠나 왔는지, 왜 서동을 만나게 됐는지를 알 것 같았다. 선화 또한 지명법사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저녁이 되자 서동과 선화는 절 앞마당 가득 황금을 쌓고 선화는 아버지인 진평왕 앞으로 편지를 써서 황금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서동과 선화로부터 엄청난 황금을 받은 신라의 진평왕은 깜짝 놀랐다. 진평왕은 서동이 비범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를 사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수시로 안부를 물으며 사이좋게 지냈다.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사위가 되어 존경을 받는다는 소문은 백제 곳곳에 널리 퍼졌다. 마침 백제에 임금의 자리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서동이 인심을 얻어 왕이 되었다. 그가 바로 백제의 30대 왕 무왕이다. 선화가 서동을 백제의 왕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사택비를 간택하다





서동이 무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무왕과 선화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무엇보다도 무왕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백성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백성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어진 정치를 펼치니, 백성들은 무왕과 선화를 존경해 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귀족들은 무왕의 집권을 탐탁해하지 않았다. 무왕이 민심을 얻어 왕위에 오른 것도 불만이었지만, 그보다도 선화에 대한 반감이 컸다.

비록 선화가 신분상으로는 신라의 공주이기는 하나, 국경을 맞대고 수많은 전쟁을 치룬 백제와 신라였기 때문에 적국의 공주를 왕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화 또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백제 내부의 귀족들이 자신에게 갖는 반감은 물론, 혹여 이러한 반감으로 인해 무왕의 통치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왕비, 요즘 들어 얼굴이 좋지 않아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아닙니다. 폐하. 그보다도 폐하의 용안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사실 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수도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심하군요. 아무래도 부여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인지라,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불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소.”

무왕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무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선화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다.

“폐하… 만일 제가 백제 귀족의 딸이었어도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유로 왕비를 원망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왕비의 지혜와 덕망 때문이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왕의 말을 들은 선화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인으로서는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여인이 아니었다. 왕비였고, 한 나라와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어머니였다. 이윽고 선화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을 무왕에게 말했다.

“폐하, 저를 그렇게까지 여겨주시니 그 마음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저는 여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왕비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요?”

선화는 숨을 한 번 고른 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무왕에게 말했다.

“마땅히 제 2왕비를 두셔야 합니다. 백제 귀족의 딸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제2왕비로 간택하십시오. 신라의 공주인 저는 어쩔 수 없이 백제 귀족의 반감을 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폐하와 귀족이 혈연관계로 묶인다면 귀족들도 무턱대고 폐하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천도 문제 또한 백제 귀족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내가 어찌 왕비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무왕은 선화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선화는 더욱 더 간곡하게 무왕에게 청을 올렸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평안케 하는 일이라면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또한 왕비로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선화의 청에 무왕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말문을 열었다. “아마 백제 귀족의 딸을 맞이하게 되면 왕비가 생각하는 대로 일은 풀릴 것ियो. 허나 나는 왕비가 걱정되오. 그래서 그 결정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यो.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청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소. 왕비… 정말로 괜찮겠소?”

“걱정하지마세요, 폐하.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이번 제2왕비의 간택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폐하를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족가문과 성심을 다할 그런 여인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화는 걱정하는 무왕을 향해 환하게 웃어보였다. 그것은 지아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왕을 향한 웃음이었다.

얼마 후, 선화는 백제 귀족의 딸 중에서 제2왕후를 간택하겠다는 명을 내렸다. 귀족들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운이 좋다면 선화를 폐위시키고 제1왕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딸을 가진 귀족들은 빠짐없이 자신의 딸을 왕비 후보로 내세웠다. 선화는 몇 날 며칠에 걸쳐 고민한 끝에 마침내 한 여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는 사택가문의 딸을 제2왕비로서 간택하겠다는 명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좌평 사택적덕은 급하게 딸을 불러 들었다.

“네가 폐하의 제2왕후로 간택이 되었다. 그러니 마땅히 선화 왕비를 몰아내고 제1왕후의 자리 또한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백제 귀족들은 궁 안에서 네가 유리할 수 있도록 폐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 또한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아, 제1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걱정하지마세요, 아버지. 반드시 선화 왕비를 몰아내고 제1왕후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택적덕의 딸이 제 2왕후가 되어 궁으로 들어가자, 선화의 생각 대로 백제 귀족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천도 문제를 비롯하여 무왕의 정책에 애써 반기를 드는 귀족들은 사라지고 무왕에게 적극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왕 또한 선화가 간택해준 사택적덕의 딸을 제 2왕비로서 인정 하고 귀하게 여겼다. 자연히 사택적덕의 딸 또한 궁에서 큰 영향 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얼마 뒤, 선화는 제 2왕후의 전각으로 발길을 옮겼다. 선화는 만면 에 미소를 띠고 사택비에게 말했다.

“사택비….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사택비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 산책이나 함께 할까 해서 왔는데… 사택 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택비는 그런 선화가 못마땅했지만, 제 1 왕후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채비를 갖춘 사택비는 선화와 함께 정원으로 향했다. 나란히 서있는 선화와 사택비의 뒤를 궁녀와 내 관들이 쫓아 걸었다. 잠시 걸음을 멈춘 선화는 궁녀와 내관들을 물리고 사택비와 단둘이 정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이내 큰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춘 선화는 사택비에게 말했다.

“내관들에게 물어보니, 이 나무는 온조대왕께서 백제를 건국하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사택비께서는 이 나무가 그 긴 시간을 어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화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사택비는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사택비는 선화에게 대답했다.

“송구하오나 제 생각에는 무수하게 뽑은 가지와 화려한 꽃잎, 그 리고 푸른 잎사귀들이 모두 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무를



이토록 거목으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사택비는 자신의 대답에 제법 만족하며 선화를 향해 웃어보였다. 선화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렸다.

“사택비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푸른 잎들이 돌아나야하는 이치를 거스르지 않았기에, 이 나무 또한 오래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허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무가 이토록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땅히 땅 속 깊이 굳게 뿌어 있는 뿌리 때문이겠지요.”

사택비는 선화가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에 선화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선화는 좀 더 힘 있는 목소리로 사택비를 향해 말을 이어나갔다.

“뿌리에서 시작하지 않는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가 땅에 묻혀야만 생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뿌리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깊은 땅속으로만 파고들지요. 그것은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야만 비로소 무수한 가지가 뻗고 거기에 꽃이 피고, 잎이 돌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왕실 또한 이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귀족이나 백성이라는 가지를 더 넓게 뻗게 하기 위해서 왕실은 뿌리처럼 더 깊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건성으로 선화의 말을 듣던 사택비는 점점 선화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땀 곳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거두어 선화에게로 향했다.

“사택비, 귀족들은 저를 싫어하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왜 귀족가문의 사택비를 간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낱 여인의 마음이라면 그리할 수 없었겠지요. 허나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왕비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사택비는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내 선화는 궁녀와 내관들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사택비는 좀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신이 끊임없이 음해하여 쫓아내 고자 했던 사람은 여인 선화가 아닌 왕비 선화였던 것이다. 왕비로서 당당한 선화의 진심을 듣는 순간, 사택비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사택비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선화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선화가 다가와 사택비의 몸을 일으킬 때까지 사택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후 선화와 사택비는 왕실의 깊은 뿌리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처소로 향했다. 선화와 나란히 걸었던 사택비는 어느새 한 발 뒤로 물러나 선화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선화, 미륵의 세상을 꿈꾸다





사택비와의 일이 있는 후, 사택가문은 더더욱 무왕에게 협력하였다. 천도를 위해 귀족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었고 새로운 궁궐을 짓기 위한 비용도 아낌없이 국가에 헌납했다. 사택비 또한 앞장서서 무왕과 선화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모든 것이 무왕과 선화의 뜻대로 풀려가자 두 사람은 기뻐하였다.

하지만 선화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었다. 지명법사의 말처럼 백성들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백성들을 위해 진정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선화는 늘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화는 무왕과 함께 사자사로 거동하였다. 두 사람은 사자사로 향할 때면 늘 함께 했는데,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 이르자 미륵삼존이 못 속에서 나타났다. 이를 발견한 선화가 무왕에게 말했다.

“저기 못 속에 미륵삼존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미륵삼존이라고요? 정말이군요. 여봐라, 당장 수레를 멈추어라.” 무왕과 선화는 수레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미륵삼존에게 절을 올렸다. 절을 올리고 일어나는데, 선화는 문득 묘안이 떠올랐다.

‘그렇다. 미륵불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제 한다는 미륵불… 폐하와 내가 만들 이 나라 백제는 미륵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태평성대를 바라는 백성들의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마친 선화가 조심스럽게 무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곳에 큰 절을 세웠으면 합니다.”

“절이라고요? 갑자기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소.”

“지명법사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길, 제가 해야 할 일은 왕도로서 이 땅의 이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이제 땅에 이로움과 사람의 지혜가 만났으니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을 때입



니다. 하늘의 뜻은 곧 백성의 뜻. 폐하께서 모든 백성을 구제할 미륵불이 되어, 이 나라 백제를 미륵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절은 백성을 구제하고자 마음먹은 폐하와 백성 간의 약속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절을 짓도록 합시다. 내 반드시 미륵과 같은 왕이 되어 이 나라 모든 백성을 구제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하겠소.”

그 길로 두 사람은 지명법사를 찾아갔다. 지명법사는 이미 사자사 앞에 나와서 선화와 무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승이 두 분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선화가 말했다. “스님, 이곳으로 향하는 길에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서 미륵삼존을 보였습니다. 그 못에 큰 절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메울 수 있을지요?”

“미륵삼존이라... 마침내 왕비마마께서 백성들의 뜻을 찾으셨군요. 필시 가륙한 왕비마마의 마음을 마침내 미륵불께서도 알아주신 것이겠지요. 두 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오늘 밤 안으로 못을 메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무왕과 선화가 돌아간 후, 지명법사는 신통력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선 평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선화는 큰 절을 짓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였다.

‘이 절은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폐하와 백성과의 약속이자,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화해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마땅히 아버님께 말씀드려 이 절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화는 그길로 진평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선화로부터 편지를 받은 진평왕은 몹시 기뻐했다.

“내 딸 선화가 백제의 왕비가 되어 이처럼 큰일을 한다는데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당장 백제로 사람들을 파견하여 절의 공사를 돕도록 하라. 이 절은 우리 신라와 백제의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진평왕의 명을 받은 신라의 건축 기술자들은 백제로 와서 절의 공사를 도왔다. 백제와 신라가 하나가 되어 일을 하니, 절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택비와 사택가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좌평 사택적덕은 왕궁 공사에 들어갈 자금을 헌납해주었다. 선화는 이에 크게 기뻐하여 사택비를 불렀다. 부름을 받은 사택비는 선화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사택비. 다름이 아니고 좌평께서 자금을 왕실에 헌납해주셨다 들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항공하옵니다. 저희 사택가문은 왕비마마와 왕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왕비마마께서 무사히 공사를 마치시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 또한 사택비의 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화는 사택비의 손을 맞잡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다 선화는 좋은 생각이 난 듯 사택비에게 말했다.

“내가 사택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택비도 알고 있겠지만 그 절에는 폐하와 제가 봤던 미륵삼존불의 형상을 따서 세 개의 탑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가운데에 세워질 목탑은 폐하의 탑으로서 미륵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석탑



을 세울 것인데 각각 미륵불을 보위하는 보살을 상징하지요. 본래 두 석탑에는 저의 공적이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나는 그 탑 중에 하나를 사택비에게 주고 싶습니다. 탑 안에 사택비께서 그 절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적을 적어 넣어 후세의 사람들도 사택비를 칭송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선화의 말에 깜짝 놀란 사택비는 손을 내저었다.

“그리되면 제가 감히 왕비마마와 나란히 서게 됩니다. 제가 어찌 왕비마마와 같이 설 수 있겠습니까. 왕비마마에 비하면 저는 부끄러울 따름이니 제발 그 말씀만은 거두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못지않게 사택비도 중요합니다. 신라에서 건너온 저의 존재가 우리 백제와 다른 나라의 평화를 상징한다면, 사택비는 백제 내에 있는 왕과 귀족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이만하면 저와 나란히 설수 있는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사택비는 선화의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울었다. 선화는 그런 사택비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사택비의 공적은 서탑에 봉안될 것입니다. 저의 공적은 동탑에 봉안될 것이고요. 지금처럼만 저와 함께 폐하를 보살펴주세요. 저희가 힘을 합치면 폐하께서 꿈꾸시는 미륵의 세상을 반드시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화는 울고 있는 사택비를 한참동안 다독겨려주었다. 문 밖에서는 무왕이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선화… 그대는 진정 대단한 사람이요. 나를 왕위로 이끌고 새로운 백제의 수도를 열었으며, 이제 곧 세워질 절을 통해 미륵의 세상을 꿈꾸었으니, 그대는 정녕 미륵의 화신이 아닌가 싶소….’

몇 년이 지난 후, 드디어 절이 완성되었다. 선화와 무왕, 그리고 사택비는 함께 완공된 절을 둘러보고 있었다. 한참을 돌아본 후, 무



왕이 선화에게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절입니다. 절 안 곳곳에 그대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배어있는 것 같구려. 그야말로 백제, 아니 삼국을 통틀어 최고의 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나라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지은 이 절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마마, 이 절의 이름은 생각해두시었는지요?”

무왕과 사택비는 선화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윽고 선화가 말했다.

“저는 이 절의 이름을 ‘미륵사’라고 지으려합니다. 미륵삼존불을 만나 이 절을 짓게 되었고, 또한 이 절은 폐하께서 백성의 뜻을 받들어, 미륵불처럼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미륵사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요. 나는 이 미륵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왕비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왕비를 만나고 나서, 황금을 얻고, 왕위에 올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비는 나의 미륵이고, 백성들의 미륵이니까요.”

선화와 무왕을 바라보던 사택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잠시 물러가 있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말씀 나누시길요.”

무왕과 선화는 웃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절의 앞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아이들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바로 오래전 두 사람을 이어준 ‘서동요’였다.

“저는 폐하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서동요’를 잊지 않고 부르는 그날까지, 폐하와 저는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왕은 선화의 손을 잡았다. 처음 만났던 서라벌 장날의 거리처럼 아이들은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며 흥겹게 서동요를 불렀다.



*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 <서동요>입니다. 백제의 서동이 신라의 공주였던 선화와 사랑을 나누는 이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 전해지는 최초의 ‘다문화가정’의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화는 자신의 지혜로 남편인 서동을 무왕에 즉위시키고, 자신을 해치려던 토착세력에 맞서기보다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내는 여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지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여성은 선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 그들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시선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시선이 될 때, 선화가 서동을 백제 무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미륵사를 창건했던 것처럼, 다문화여성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맞선 **정순옹주** 여성의 참여를 이끈다

영원히 가신 다리, 영도교(永渡橋)

작은 돌다리 위에 두 남녀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유난히 달이 밝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여자의 눈물이 남자의 손등에 뚝뚝 떨어졌다. “이제 그만 울음을 멈추세요. 자꾸 울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여자는 소매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내도 지울 수 없는 슬픔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소첩은 언제쯤 전하의 용안을 다시 뵈올 수 있을지요.”

“걱정하지마세요. 숙부의 노여움이 가라앉으면, 멀지 않아 우리 두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소첩은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다시는 전하의 용안을 뵈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멀리서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의 사내들이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주었다.

“중전, 금방 다녀올게요. 다녀오거든 평범한 지아비와 지어미로 지냅시다.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얻고 여느 부부들처럼 서로를 다독거리며… 우리 그리 살아요.”

남자는 애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흐느끼는 여자의 등을 가만 가만 쓸어주었다. 그러나 여자는 쉬이 울음을 거두지 못했다.

“노산군마마, 이제 그만 가셔야 합니다.”

그 때, 무리에서 빠져나온 한 사내가 다가와 고하였다. 두 사람은 안타깝게 서로를 바라볼 뿐 잡은 두 손을 쉬이 놓지 못했다.

“더 이상 지체하셨다가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주상전하께서도 시급을 다투어 노산군마마를 영월로 모시라 하였습니다.”

사내는 거듭하여 재촉하였다. 이내 남자는 여자의 손을 살며시 놓고 뒤돌아섰다.

“내가 그대들을 곤란하게 하였구나. 그대들은 길을 열도록 하여라.”

남자는 기다리고 있던 사내들과 숲으로 이어진 길로 천천히 들어섰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남자는 몇 발자국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남자를 따르던 사내들도 이내 걸음을 멈추었다. 남자는 사내들을 한 번 바라본 후, 왔던 길을 되돌아서 여자에게 달려갔다.

“중전… 미안합니다. 그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리 떠나서… 하지만 돌아오거든 내가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꼭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이 나약한 남자를 지켜주었으니 이제 내가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그 때까지…”

남자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의 곁에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니 전하… 부디 무사하셔야 하옵니다. 부디 무사히…”

여자는 차가운 돌다리 위에서 예를 갖추어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남자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사내들이 멀찌감치 서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대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였구나. 금방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굴었으니…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남자는 다시 숲으로 걸어들어 갔다. 사내 무리가 남자를 호위하며 뒤따랐다. 한참 후, 숲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이르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군사들이 튀어나와 일사분란하게 남자의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남자는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영월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지금 이 남자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남겨두고 온 여자였다.

“전하…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남자가 멀어질 때까지 여자는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이윽고 남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여자는 돌다리에 털썩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고 혹여 발길을 멈출까 두려운 마음에 그동안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 돌다리를 ‘영미교’라고 불렀다. 그러나 두 남녀의 이날의 헤어짐이 있던 후부터는 ‘영도교’(永渡橋)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영원히 가신 다리’라는 뜻이었다. 그랬다. 여자의 우려대로 두 사람은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열다섯 나이에 왕비가 되다





“물겠습니다. 나이와 본관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종서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한 소녀에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김종서를 바라보았다. 맑게 빛나는,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였다.

“네. 소녀는 올해 열다섯 이웁고 본관은 여산(礪山)입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이신 송현수(宋玟壽)이시옵니다.” 김종서는 소녀를 보고 얹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있던 황보인에게 물었다.

“공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황보인은 희고 긴 수염을 가만가만 쓸며 말했다.

“참으로 어진 왕비가 될 상(像)이십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시니,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종서는 소녀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이 소녀라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군의 아내로서, 아니 왕비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주상께서는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셨습니다. 상왕께서는 저희에게 어린 주상을 맡기고 승하하셨지요. 때문에 저희는 상왕의 유지를 받들어 종묘사직을 보존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비가 되실 몸이니 마땅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로서 훌륭한 성품을 지니셔야 할 것입니다.”

김종서가 소녀에게 당부하듯 힘주어 말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종서를 응시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소녀의 생각 또한 그러합니다. 이 나라 조선의 종묘사직을 보존



하고 백성에게 어진 왕비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니 아무쪼록 두 분 대신께서도 승하하신 상왕전하의 분부를 잊지 마시고, 저와 전하를 잘 보필하여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김종서와 황보인은 도리어 소녀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소녀에게 절을 올렸다.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소녀에게 절을 올리는 두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때, 밖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상전하께서 납시었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쪽으로 물러났다. 방문이 열리자 붉은 곤룡포를 입은 소년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소녀와 마찬가지로 맑고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년이었다. 소년은 두 사람을 물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있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드세요, 중전.”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리지만 담대한 기상을 품은 얼굴이었다.

“본관이 여산이라 하면, 옛 백제의 수도이로군요. 어렸을 때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들곤 했었는데, 중전을 이리 보고 있으니 마치 선화공주가 환생을 한 것은 아닐까 싶네요.”

“과찬이십니다. 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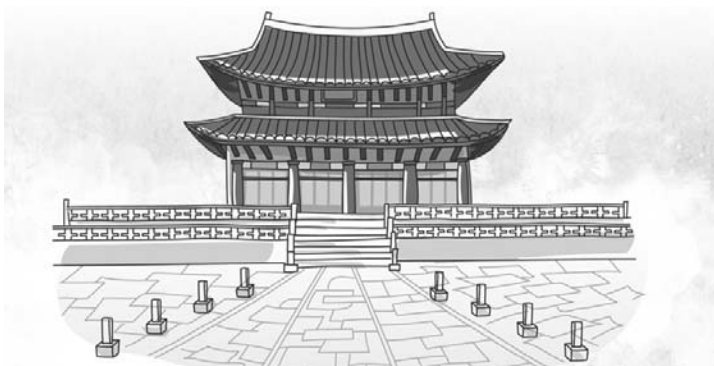
소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서동을 백제의 무왕으로 이끌어 준 선화공주처럼 중전께서도 부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소녀는 소년을 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소년의 얼굴에도 아주 오랜만인 듯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숙부, 조카의 왕위를 노리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양대군은 앞에 놓인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가득했다.

“대군께서는 부디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혹여 바깥에서 누군가 들을까 걱정됩니다.”

한명회는 한껏 노기가 올라있는 수양대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 김종서와 황보인의 만행을 보고도 어찌 참을 수 있단 말ियो?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물론 그것은 대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태조께서 조선을 건국하신 이후 대군의 아버님 되시는 세종께서 힘써 이 나라의 기틀을 잡으셨기에 비로소 왕권이 바로 서게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주상께서는 너무 어리시고, 상왕께서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에게 주상을 부탁하셨으니 신하들의 권력이 왕권을 능멸하고 있다하여 도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양대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명회는 그런 수양대군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대군께서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바는 무엇이옵니까? 그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만행을 바로 잡고자 하시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한명회는 말끝을 흐렸다. 수양대군의 마음이 짐작되기는 하나, 함부로 꺼낼 수는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양대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수양대군은 조용한 목소리를 말문을 열었다.

“아마도 자방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을 것ियो.”

한명회는 수양대군이 자신을 장자방에 빗대어 부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장자방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가 아니던가. 그러니 수양대군이 자신을 장자방이라 부른다는 것은 스스로 나라를 세울 왕이 되고자 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한명회는 목소리를 더욱 낮춰 조심스럽게 수양대군에게 말했다.

“대군의 생각이 저와 같으시다면, 저 또한 대군을 유방으로 모셔야겠지요.”

“유방이라…”

수양대군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고 한명회를 응시했다.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주상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지요.”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난색을 표하며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상을 끌어내릴 빌미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없다는 것이요.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트집을 잡을 수가 없소. 안으로는 중전이 기강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주상은 기강을 다잡으니….”

“주상이 중전을 만나니 이것이야 말로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오 내가 조카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하오. 그 난관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수양대군이 한숨을 내쉬자 한명회는 간사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군의 장자방인 이 한명회가 말이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말을 듣자마자 세상이 떠나갈 듯 호탕하게 웃었다. 비로소 그 또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한명회 또한 수양대군을 따라 크게 웃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스산한 밤이었다.

왕에서 상왕으로, 다시 노산군으로





상왕이 기거하는 전각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관들과 궁녀들마저도 자리를 비우고, 그 큰 전각 안에는 오직 단종과 정순왕후만이 남아있었다. 겁에 질린 단종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중전, 큰일입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대신들이 숙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대신들은 내가 연루되어 있다며 상소를 올리고 있다고 하니… 분명 숙부께서는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단종을 품에 안으며 진정시켰다. “아닙니다. 이미 전하께서는 왕위를 숙부님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왕위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 숙부님께서 전하를 해치려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순왕후는 단종을 진정시키며 애써 침착하려 하였다. 그러나 불길한 생각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계략이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 신하들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 나라에 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을 처단한 후에는 어김없이 힘없는 지아비로 하여금 왕위를 빼앗았다. 왕위를 빼앗기 위해 그럴듯한 모양새를 취했던 것이다. 결국 왕위를 내놓았을 진데 신하들은 왜 자꾸만 성삼문, 박팽년 등의 일을 지아비와 연관시키려 한단 말인가? 이미 지아비와 나는 이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신세나 다름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들에게 밑지를 내린단 말인가….’

정순왕후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였다.

“죄인은 주상전하의 명을 받으시오!”

늦그릇 깨지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방안을 점령하더니 이내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뒤에는 한 남자가 거만하



게 부채를 부치며 따라 들어왔다. 한명회였다. 정순왕후는 그런 한명회의 눈을 노려보았다.

“두 분이 함께 계셨사옵니까? 뵈 때마다 함께 계시니 참으로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하하하.”

“그대는 일국의 신하로서 상왕전에 들어올 때 갖추어야 할 예의를 잊었는가? 어찌 상왕전하 앞에서 그대의 목소리는 이토록 경망스러울 수 있단 말이나?”

한명회의 비아냥거림에 정순왕후는 근엄한 목소리로 추궁하였다. 한명회는 정순왕후의 다그침에 잠시 말을 잊지 못하였으나 이내 단종을 향해 소리쳤다.

“어명이오. 성삼문, 박팽년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한 그대를 왕의 자격을 박탈하고 노산군으로 감봉하여 영월로 유배하라는 전하의 어명이 떨어졌소. 지금 즉시 궁을 나가 명을 받들도록 하시오.”

정순왕후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원통하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명회는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뭐하고 있느냐? 어서 두 분을 모시지 않고!”

“네.”

군사들이 움직이자 한명회는 단종과 정순왕후를 한 번 쓱 훑어본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군사들은 단종과 정순왕후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멈추어라. 당장 이 손 놓지 못할까.”

정순왕후가 낮지만 근엄한 목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군사들은 정순왕후의 불호령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금 어디에 손을 댄단 말이나? 내 스스로 나갈 것이다. 이곳에 들어 올 때에도 내 발로 걸어왔으니 나갈 때도 그리할 것이야. 그



러니 당장 길을 비켜라.”

정순왕후의 불호령에 군사들은 하나 둘 길을 내주었다. 정순왕후는 겁에 질려 있는 단종의 손을 꼭 잡았다.

“전하, 그만 가시지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어디에 계시든 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하지마세요.”

정순왕후는 단종을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정순왕후의 미소를 본 단종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두 사람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구중궁궐을 빠져나오는 내내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걸음이었다.

동망봉의 울음소리는 동정곡으로 울려 퍼지고





단종이 영월로 향한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 사이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여러 번 정순왕후를 찾아왔다. 그들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먹을 것을 두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이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정순왕후가 매번 거절을 하자 몰래 두고 가는 자도 있었으나 다음사람이 오면 어김없이 손에 들려 보냈다.

“마마, 이러시면 곤란하옵니다. 쌀독이 텅 비어 이대로 가다가는 마마께 변변치 않은 상조차도 올릴 수가 없사옵니다. 원통한 마음 모르지는 않사옵지만, 받으시지 않으면 저희 모두 굶어죽고 말 것입니다.”

정순왕후를 모시는 시녀가 눈물로 고하였다.

“그대의 말은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수양대군이 보내는 것은 죽어도 받을 수가 없구나. 지아비가 떠나면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지어미가 되어서 어찌 혼자만 호의호식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마마…”

“걱정하지 말거라. 내 그대들을 굶기지는 않을 것이야. 한 나라의 지어미였던 자가 식구들 입에 풀칠조차 못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앞장들 서거라.”

“어디를 말입니까?”

시녀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정순왕후에게 물었다.

“먹을 것이 없다면 구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니 근처에 장이 서는 곳으로 앞장 서거라.”

정순왕후는 시녀들을 앞세우고 장터로 향했다. 제법 큰 장인지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순왕후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옷감을 파는 한 아낙에게 다가갔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옷감은 잘 팔리는 편인가요?”

정순왕후를 본 그 아낙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아이고, 마마님 아니십니까.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정순왕후는 조심스럽게 아낙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죄인의 몸으로 무슨 인사를 받겠습니까.”

아낙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낙들 모두 마마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귀하신 몸으로 이런 장터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아낙은 슬쩍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무엇을 하면 우리 식구들 밥 굶기지 않을까 해서요. 모두 다 저 하나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밥이라도 든든히 먹이고 싶은 마음에 나와 봤어요. 그런데 이 옷감은 색이 참 곱네요. 혹시 어떻게 얻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순왕후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정순왕후의 쓸쓸한 웃음에 따라 나선 시녀들도, 그리고 아낙도 마음이 아팠다. 아낙은 정순왕후에게 옷감을 염색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이 정도면 저도 따라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다면 이름을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고 싶는데…”

“아이고, 저 같이 미천한 것의 이름까지 물어봐 주시다니… 괜찮습니다. 우리 마을 아낙들은 모두가 그저 마마님께서 평안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아낙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국모도 아니고 죄인의 신분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꼭 이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럼 그냥, 동이 엄마라고 기억해주세요. 마마님.”

“동이 엄마, 고마워요.”

정순왕후와 시녀들은 아낙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이 엄마는 정순왕후의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정순왕후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왕후는 시녀들과 함께 땀, 저고리 깃, 옷고름 등을 챙겨 근처 샘물로 향했다.

“이곳에서 물을 길어 땀기들을 염색하는데 쓰도록 하자.”

정순왕후는 만류하는 시녀들을 세워두고 직접 물을 한바가지 떠서 땀기에 부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땀기에 자주색 물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마! 염색도 하지 않은 땀기가 자주색으로 변하였습니다.”

“그저 물만 부었을 뿐인데… 참으로 신기하옵니다.”

정순왕후는 자주색으로 변한 땀기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색은 필시 전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내가 자주색으로 수를 놓을 때마다 참으로 어여쁘다 좋아하셨는데… 전하께서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색에 담아 보내 주시다니…”

정순왕후의 말에 시녀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때 궁에서 나온듯한 파발마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 정순왕후앞에 멈춰 섰다.

“무슨 일이냐. 불과 얼마 전에도 궁에서 사람이 다녀갔거늘…”

정순왕후는 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말했다.

“주상전하의 어명이요. 죄인 노산군은 금성대군이 일으킨 역모에 가담한 죄로 사약을 내리고 그의 처인 송씨는 노비로 삼는다. 하지만 신분은 노비이되 사역할 수 없도록 하여,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청천벽력이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정순왕후는 믿기지 않는 듯 지아비가 보내준 자주색을 바라보았다.

“전하…아니 됩니다. 자주색이… 자주색이… 이별이라니요…”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쓰러져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시녀들은 급히 정순왕후를 부축하여 집으로 옮겼다. 정순왕후에게 있어 노비가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것은 지아비의 죽음이었다. 그것은 이승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기다림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였다.

정순왕후는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홀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정순왕후는 시녀들에게도 이르지 않고 영월이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로 향했다.

단종이 그리울 때마다 한 번씩 찾던 곳이었다. 정순왕후는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정순왕후의 눈에는 어느새 참았던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전… 전하… 전하…”

정순왕후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헤어지던 그 밤, 지아비를 다시 만나면 그 때 그 품안에서 마음 놓고 울겠다고 다짐했던 정순왕후였다. 그러나 지아비의 품을 잃었으니 정순왕후의 울음소리는 이내 산맥을 타고 작은 산줄기를 따라 봉우리 아래까지 흘러 내려갔다.

정순왕후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닭조차 울지 않았다. 대신 하나 둘,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정순왕후가 노비가 되고, 단종이 사약을 받았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마을 여인들이 정순왕후를 향해 바치는 동정곡(同情哭)이었다.



여인들의 울음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땅을 한 번치고, 가슴을 한 번치고, 땅을 한 번치고, 가슴을 한 번치는 여인들의 동정곡은 이후 정순왕후가 아침, 저녁으로 영월을 향해 눈물을 쏟을 때마다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어김없이 새벽닭은 울지 않았다.

여인들, 여인을 위한 시장을 만들다



단종이 죽고, 정순왕후가 노비가 된 후 정순왕후가 살던 집에는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궁에서도 정순왕후의 집에 사람이 드나드는 일을 엄격히 금하였으나, 그 이상으로 정순왕후와 연관되어 피해를 볼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자연히 정순왕후의 생활도 그전만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여인들이 하나 둘씩 뒷산 개울로 모여들



기 시작했다. 빨래도 하고 여름이면 몸을 씻는 여인들만의 공간이었다. 잠시 뒤 개울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모여 앉았다. 그 중에서 한 아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여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모이셨네요. 약속대로 이렇게 다들 모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순왕후에게 옷감 염색하는 법을 알려주었던 동이엄마였다.

“당연하지. 마마님과 관련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빠질 수 있겠어.”

“맞아. 마마님이 당하신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맞아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대체, 숙부라는 자가 어떻게 조카를… 아이고, 불쌍하신 우리 마마님 어찌면 좋아…”

“오늘 새벽에도 동망봉에서 그렇게 우시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개울에 모인 아낙들은 정순왕후의 딱한 처지에 저마다 한 마디씩 거들었다. 어떤 여인은 눈물짓고, 어떤 여인은 가슴을 쳤고, 어떤 아낙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잠시 후, 동이엄마가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모였으면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마마님이 얼마나 불쌍한 분이십니까.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모두 죽고… 이젠 굳이 마마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중 한명이 그리 되었어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 맞아. 마마님이라서 이러는 것만은 아니야.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나고…”

“맞아요 맞아.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살이 떨리는데…”

“궁 안이나 궁 밖이나 만날 싸움질이나 해대는 이 사내놈들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얹어버리던지 해야지.”

한 아낙이 당장 뛰어들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불쑥 소리를 내지르자 옆에 앉아있던 아낙이 만류하고 나섰다.

“아이고 말조심해. 누가 들으면 여기도 초상 치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마님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아낙들이 일제히 동이엄마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생각하던 동이엄마가 결심한 듯 아낙들을 향해 말했다.

“아무래도 마마님 집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조금만 낚새가 이상해도 병사들이 관아로 끌고 가버리니…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야?”

“마마님 집 앞으로 해서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이 시장은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마님 집에 드나들어 병사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마마님을 도와드려도 별 일 없지 않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동이엄마. 사내놈들은 못 들어오는 우리 여인들의 시장이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사내들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 모여서 사내들 흉도 좀 보고 그러면 좋겠네.”

이 말을 들은 아낙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생각을 모으고 한참 궁리하던 여인들이 흠어지고 난 후 밤이 되자, 동이엄마는 남들 눈을 피해 정순왕후의 집을 찾았다.

“마마님. 안에 계십니까? 저 동이엄마예요.”

동이엄마가 목소리를 낮춰 정순왕후를 찾았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리더니 한 시녀가 동이엄마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정순왕후가 소복을 입고 앉아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송구합니다…”



“마마님. 그런 말씀마세요. 마을 여인들은 오직 마마님 걱정만 하고 있는 걸요. 마마님께서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네. 그리해야겠죠.”

정순왕후는 힘없이 웃었다.

“저… 마마님, 잠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이엄마는 아낙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순왕후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정순왕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내 정순왕후가 입을 열었다.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허나 저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을 진데 쉽게 받아드릴 수만은 없는 일이군요.”

“아닙니다, 마마님. 우리 마을 모든 여인들은 마마님을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더구나 큰일을 당하셨으니 모두 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비단 마마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여염집 아낙의 몸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마님을 비롯해서 그런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동이엄마를 비롯해서 마을 여인들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비운의 왕비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 비록 정면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나 여인들이 여인들을 위해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 또한 그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날, 정순왕후의 집 앞에는 마을 아낙들이 세운 시장이 들어섰다. 여인들이 세우고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 하여 말 그대로 ‘여인시장’이었다.



병사들은 정순왕후를 감시하기 위해 때때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마을 여인들은 그때마다 여인시장의 규칙을 내세워 병사들을 번번이 막아섰다.

이 여인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동이엄마가 파는 물건들이었다. 여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이엄마가 파는 물건을 사기 위해 여인시장에 드나들었다. 그것은 유난히 자주색 빛이 고운, 바로 정순왕후의 땡기였다.

* 이 이야기는 조선 단종의 비였던 정순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의 권력의 틈새 속에서 정순왕후는 비운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조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순왕후의 모습을 통해 그녀를 따르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고, 마침내 조선시대 최초의 페미니즘 운동이라 볼 수 있는 ‘여인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남성에 비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남성은 물론 시대적 비극과 맞섰던 ‘여인시장’은 역사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 주체적인 역할을 찾아가고자 했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찾기 위해 창업을 하거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은 남녀평등은 물론 여성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때 우리 사회는 소외된 사람이 사라지고, 사회적 약자가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 도시, 여성의 삶

아침 6시, 아이들이 깽까 봐 선화 씨는 조심해서 일어났어요.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와 남편을 깨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요즘은 남편이 미워질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런 날이에요. 아이들 챙기기에 바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TV 뉴스만 보고 있어요. 오늘도 남편은 아이들 밥 먹는 걸 도와줄 생각이 없나 봐요. 남편은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선화 씨는 집안일을 정리하고 5살 아들을 어린이집 차에 태워주고 출근해야 해요. 빨간 불에 자동차가 멈출 때면 차안에서 선화 씨는 화장하기 바빠요. 아침부터 서둘렀지만 오늘도 선화 씨는 제일 늦게 출근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선화 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회의에 들어가야 하는 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전화예요. 회의에 빠질 수 없어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 봤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몸이 불편하신 친정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일찍 퇴근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괜찮아 보여요. 저녁을 먹고 책 읽어주고 목욕 씻기고 재우고 나니 10시가 넘었어요. 이제야 선화 씨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며 TV를 켰어요. TV에서는 올레길에서 홀로 걸던 여성이 살해되고, 여자아이가 동네 남자어른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결혼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고 있는 딸아이가 걱정돼요. 저녁 11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귀가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이에요. 여전히 총각처럼 생활하는 남편은 행복해 보이네요.

주말에 남편이 외식을 하자고 해요. 선화 씨는 모처럼 멍을 내고 싶어 치마도 입고 하이힐도 신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데 자꾸 하이힐이 빠져요. 파란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기 위해서 아이들과 선화 씨는 뛰다시피 했어요. 다리가 긴 남편이 부러워요. 신호등을 만든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한 성인 남자일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생활, 너무 힘들어요!

집안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몰라주는 남편이 아속하기만 해요. 교육 기회가 여성에게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성차별이 금지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성의 현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화 씨 같은 젊은 세대는 부모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자랐고 비교적 평등한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생활,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끝내지 못한 일과 내일 할 일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어쩔 수 없이 퇴근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도 잠시 집에 들어서면 또 다른 직장이 선화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엄매 엄마! 외치며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서 신경 쓰면 일이 밀리고, 일에 신경 쓰면 아이에게 무관심한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좋은 엄마, 일 잘하는 직원이고 싶은 선화 씨 마음을 남편은 잘 몰라주고 도와주지 않아요. 선화 씨 마음을 모르는 아속한 남편은 아이 셋을 갖기를 원해요. 선화 씨는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지금도 가족과 직업 사이에서 만족할 만큼 균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거든요.

때론 남편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남편은 잦은 야근에, 때때로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곤 하는 데,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혼자만 직장 다녀. 애는 엄마 혼자 키우는 거야?” 홀로 육아에 지친 선화 씨의 한숨도. “아빠는 매일 술마시고 늦게 오고, 쉬는 날은 잠만 자고, 아빠 미워!” 아이들의 원망도. “애비야, 바쁘냐? 밥은 먹고 일하는 거지? 얼굴 잊어버리겠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어머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남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요. 남편도 일과 가정, 둘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선화 씨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균형 잡힌 생활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일과 가정이 균형을 맞추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화 씨가 꿈꾸는 도시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의 결과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되고 있어요. 경기침체와 실업이 자살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선화 씨는 너무 무서워요. 선화 씨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살기를 원해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에요. 또한 여성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참여하게 하는 도시정책이에요.

여성의 일상과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랍니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족과 지역 내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섬세한 감성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으로 활용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서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지 않고, 도시의 쾌적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도시정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만을 위한 도시?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는 한편으로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 남성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어요. 이를 통해 여성은 물론 아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두의 세심한 배려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역민 사이에서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도시로 여성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책입니다.



익산은 ‘왜’ 여성에 주목했을까?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출발지는 익산이에요. 익산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익산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익산은 여성 활동이 활발할 때 도시 품격이 올라갔었죠. 백제 무왕은 선화공주를 모셔서 왕이 되셨고, 고려시대 익산이 익주로 격상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원나라 기황후의 추향(조상의 선산이 있는 곳)이 익산이었기 때문에 격을 높여 익주로 해줬습니다. 여인시장(단종 비 정순왕후를 돕기 위해 여성들이 여인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시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선조 최초의 페미니즘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정순왕후도 익산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남녀유별의 유교전통을 따르고 남녀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조상들의 지혜와 독창성이 돋보이는 성당면 두동교회의 기억(기)자 예배당은 남녀평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금제 사리장엄의 정기를 받아서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을 획득하여 31만 익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익산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지역을 일구고자 하는 태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익산도 현대사회에 와서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과 똑같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바로 인구 감소라는 문제지요. 물론 저출산이라는 시대적인 문제가 걸려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방의 도시는 그보다도 젊은 층이 일자리와 좋은 교육을 찾아서 대도시로 나가는 것에서 인구 감소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익산시는 많은 고민을 했지요. 단순히 익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었어요. 일자리가 있고 보육과 교육 환경이 좋아 살고 싶은 도시에 가정이터를 잡도록 결정하는 역할은 '여성'의 몫이니까요. 결국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매력을 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현대사회 속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고민들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탄생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익산시는 2008년 5월 여성정책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부 장관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3월, 익산은 마침내 우리나라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 수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들은 여성친화도시를 명실상부한 미래도시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익산시는 시대적 흐름을 읽은 주체적 선택으로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친화도시의 사례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이 요구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 선도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익산시가 평등한 도시를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사회에 대단한 자극을 주었고, 그 자극이 현재 전국적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추동하고 있어요.

2012년 7월 현재 30개 지역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을 받았고, 2012년 11 월에는 10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에요.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와 준비 도시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순례하듯이
익산시를 찾아오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27개 지역에서 익산을 찾아왔어
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대단한데 이는 모두 익산시의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친화를 꿈꾸는 익산의 행보가 마침내 ‘여성친화도시’라는 주제로
성장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채택되기까지 익산시의 노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조례를 검토하여 행정기반을 쇄신한 것,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 것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시 정책 전반의 평등정책으로의 변화를 열심히 전파해 준 익산시의 노력은 여성친화도시 정체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요.

'여성친화도시 익산 사업'이 궁금하세요? 그럼 익산에 살고 있는 선화씨를 통해 한번 알아보까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사업 70여개 중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화씨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모두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익산의 여성친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노약자 이동이 편리한 공간 조성

☐ 공원을 여성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익산에서는 선화 씨는 퇴근 후에 공원에 산책을 나가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신나게 나가요. 오마이갓! 술 취한 아저씨가 옷통을 벗고 누워있어요. 가로등도 어두워서 무서워요. 빨리 지나가려는데 유모차가 턱에 걸렸어요. 무거워서 들기도 어려워요. 그냥 돌아가기로 마음먹어요. 산책하려다 망했어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여성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개선을 하고 있어요. 먼저 공원을 트인 구조로 만들어서 우범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요. 가로등도 환하게 밝히고 CCTV도 달아요. 뿐만 아니라 야생화단지, 장미정원도 가꾸요. 이쯤 되면 화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들겠죠? 유모차가 드나들기 쉽게 턱도 없애고 길도 콘크리트 대신 폭신한 탄성제로 바꿔주어요. 정말 좋겠죠?

여성은 물론 노약자와 아동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익산시는 더욱 노력할 거예요!

□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여성을 위한 콜택시**

선화 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요. 늦은 시간이라 버스로 끊겨서 택시를 잡아요. 오마이갓! 택시 아저씨가 무섭게 생겼어요. 야간이라서 엑셀도 마구 밟아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지나가요. 이 아저씨 색맹인가 봐요. 모르는 길로 마구 달려요. 무서워 죽겠는데, 집 앞이에요. 택시에서 내린 선화 씨가 주저앉아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콜택시인 핑크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아한 핑크색이 예쁘죠? 익산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색깔이 전부가 아니에요. GPS를 이용한 이동경로 체크는 물론 탑승자에게는 문자로 운행정보를 제공해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려도 운행정보를 통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소중한 물건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익산에는 총 50대의 핑크택시가 여성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실수록 기사 분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어요. 안전은 물론 친절함은 덤으로 드려요. 여러분, 핑크택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 화장실 이용이 편리해졌어요.

선화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중앙체육공원에 갔어요. 돛자리 깔고 간식도 먹고, 산책도 하고, 물놀이도 하며 재미있게 놀다 어린 아들이 화장실에 가야한대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선화 씨가 남성 화장실에 갈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들과 함께 여성화장실에 가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 중앙체육공원에는 여성 화장실에 남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전용화장실에는 여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눈에 띄이네요.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에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구요, 조명에서도 섬세한 배려가 엿보이네요.

맞춤형 여성화장실답게 특히 아이를 동반한 엄마를 위한 시설이 돋보이네요. 기저귀 같이 선반은 물론이구요. 휴게실도 마련하고 있어요. 주로 수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너무 좋아졌죠?



□ CCTV는 '안심도시'의 첫걸음

얼마 전에 선화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아이와 함께 어린이놀이터에 갔다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봉변을 당할 뻔 했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큰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어린이놀이터에 가기가 무서워요. 혹시 사람이 없을 때 아이가 봉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여성친화도시 익산시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바로 익산입니다!



□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을 위한 배려 공간, 여성우선주차장

익산 인근에 사는 선화 씨 친구 임신부 은진 씨는 면허를 따고 처음 차를 샀어요.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차를 몰고 가요. 다 왔으니 주차를 하려고 해요. 오마이갓! 후진을 하다가 옆 차와 부딪쳤어요. 완전히 김여사 되었어요. 간신히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더니 차와 차 사이가 너무 좁아요. 나온 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요. 점심밥 많이 먹은 게 괜히 후회가 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은진 씨 익산에 와 보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여성운전자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여성우선주차장 폭은 250cm로 기존 주차장에 비해 20cm 넓어졌어요. 또한 출입문에서 가깝고 밝고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있어요. 후진에 서툰 여성운전자에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차 시 차와 차 사이의 간격도 넓어 임신부와 같은 여성은 물론 아동, 노약자들이 타고 내리 기에도 편하고 안전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익산시 안에서 핑크색 네모 안에 꽃 그림이 그려진 주차 공간을 찾아보세요. 바로 거기예요. 주차 가능 면수에 10%이상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대부분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지만 익산시에 있는 모든 주차장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도시

□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선화 씨는 농산물 가공사업을 시작했어요. 부푼 가슴을 안고 멋지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돈이 부족해요.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상품판매를 위한 마케팅도 어렵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여성 CEO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여성 CEO를 위해서 이자를 최대 5%까지 보전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은행에서 6%의 이율로 대출을 받으신다면, 실제로는 1%의 이자만 부담하시고도 자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예요. ‘익산시상공회의소’에는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다양한 여성 CEO들을 만나실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익산에서 여성 CEO로 성공하는 길. 어렵지 않죠? 한 번도 전해보세요!



□ 야근 걱정 끝!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서 해결해요

선화 씨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결혼을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자신의 꿈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요. 문 닫을 시간이니까 어서 아이를 데려가래요. 집에 혼자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일을 그만두어야할까 봐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자신의 꿈을 향해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어요.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집 3개소 중 1개소는 시간 연장을 하고 있어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되니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물론 냉난방비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도 지원을 해드려요. 시간 연장 보육교사가 있고 2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고 먹거리도 믿을 수 있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익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어린이집 교사 여러분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세요!



□ 여성농업인의 힘! 농촌을 바꿉니다.

익산에 사는 선화 씨는 농촌에서 남편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모두 남편 소유예요. 자신은 그저 소작인 같아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참자에 흑이 났다고 수술을 받으래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농사일이 산더미예요. 다시 밭으로 나가요.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농촌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여성의 소득증대와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에 의한 의식 개선, 휴식 공간의 제공 등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CEO가 되어서 많은 소득을 버는 분도 계세요.

농지의 소유도 공동 또는 여성 개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도 해요. 웬지 남성분들은 뺏기는 기분이 드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노후 보장이나, 연금 혜택 등에서 농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때요?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 여성일 자리를 찾아줍니다

익산시에 사는 선화 씨는 자신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찾고자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를 찾고 싶은 선화 씨는 어떻게 해야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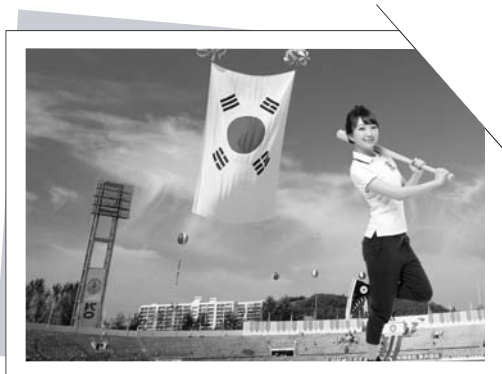
걱정하지마세요! 이렇게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해서 익산시가 발 벗고 나섰어요.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나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쉬어야했던 여성, 또 졸업 후 첫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어요. 희망 나눔 취업상담은 좀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진로를 찾아주고 직업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을 찾아 거리로도 나섰어요. 여성새일지원본부는 상담 뿐 아니라 무료 직업교육까지 연계하고 있어요. 상담에서 교육 그리고 취업까지 새일지원본부의 원스톱 취업 서비스는 여성들의 취업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환경조성사업도 전개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결혼 등으로 잠시 미뤄두었던 자신의 일을 다시 하시고 싶으신가요? 익산시에서 도와드릴게요. 일하는 여성의 꿈! 응원합니다. 일이에요. 어때요?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 스포츠를 통한 사회 참여, 여성체육대회!

익산에 사는 선화 씨는 남편이 가입되어있는 조기축구회 모임에 갔어요. 선화 씨가 응원을 해요. 열심히 응원을 해요. 응원만 열심히 해요. 선화 씨도 한번쯤 뛰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날 도시락만 싸요. 아이들은 재미없다고 한 쪽에서 놀아요. 선화 씨도 멋지게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고 싶어요. 선화 씨가 우울해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없어요! 익산에서는 여성들이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체육대회 확대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2012년에는 ‘제42회 카네이션컵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가 유치되어 익산시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여자야구경기대회인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여성친화도시 제1호인 우리 익산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전국 27개 여자야구팀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여성체육인들에게 익산은 활기찬 여성들의 건강한 도시가 되었답니다.



□ 여성영화제작에 도전하세요!

익산에 사는 선화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김기덕 같은 영화감독이 꿈이에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머릿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봅니다. 영화감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의 이야기를 영화로 꼭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밥풀이 말라붙은 밥그릇을 열심히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는 선화 씨의 모습이에요. 선화 씨가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마세요! 익산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익산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여성 관련 단체와의 공동주체로 여성의 참여와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지요. 특히 시민참여형의 이 프로그램은 지역영상문화기반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여성영화제작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농부는 싫어요>, <엄마, 일해도 될까요?>와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 방송사와 언론,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지요. 영화감독이 꿈이신가요? 그러면 익산으로 오세요. 여성을 위한 ‘시네마천국’. 익산에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도시

□ 아빠와 함께 하는 도서관

익산시에 사는 선화 씨는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다녀요. 오마이갓 부랴부랴 아이를 쫓아다녀요. 아이도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했더니 아이가 싫어해요. 책 읽기는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곳곳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가 한창이에요. 시민들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책 읽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면서 도서관들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점차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또 사랑방으로 애용되기에 이르렀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해 많은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요. 수유실을 배치하고,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탁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한 건 도서관을 통해 엄마와 아이, 그 이상으로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아빠도 엄마와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토요일에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주세요. 책 읽는 즐거움은 물론, 식구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주말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 행복한 임신! 모두에게 산전 검사비 지원

익산에서는 선화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갖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뻐요. 그런데 이런! 산전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운맘 카드’를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또 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출산시대에 출산율도 높였는데 선물을 주시면 안 될까요? 선화 씨가 우울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아이를 낳는 기쁨을 축하드리기 위해 임신부 280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고요? 산전검사비를 지원해드려요. 이제 지원금만으로도 필요하신 산전검사 모두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익산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나 배우자는 임신 24주 이상이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오직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지원제도에요. 헛갈리면 안돼요! 임신부가 아니라 임신부 280 서비스예요. 아이를 가지신 부모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선물 받아주세요!



□ 다문화 소통의 마당을 엽니다.

한국으로 시집와서 익산에 살고 있는 선화 씨는 한국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갔더니 직업교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집에 갔어요. 속상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이에게도 말을 가르쳐야 하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보통은 직업훈련에 매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친화도시 익산은 그 이전에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글과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직업교육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한국 생활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익산시청에 전화를 해보세요. 익산시청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베트남 출신의 타오씨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이드북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만 남았네요!



□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어요.

익산시에 사는 선화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중앙체육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얼마 전부터 걷기 시작한 아이는 이제 유모차가 필요 없을 거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금방 지쳐버려서 울어요. 어쩔 수 없이 안고 걷는데, 팔이 너무 아프기 시작해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유모차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요. 오랜만의산책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중앙체육공원은 물론 3개소에서 유모차 대여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답니다. 언제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365일 내내 대여가 가능해요. 사용되는 유모차는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관리되고 있답니다. 파손된 유모차는 즉시 새로 구입하고 유모차와 보관대는 늘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 나오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몸만 나오세요. 유모차는 익산시에서 빌려드릴게요.



□ 쾌적하고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익산에 사는 선화 씨는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어요. 차도 한 잔 마시고, 산책도 하고, 공연도 하나 쫓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는 온통 술집뿐이고 좁은 거리 안에는 차들이 다녀서 도통 걸어 다니기도 어려워요. 하이힐 때문에 다리도 아픈데, 잠시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네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유모차를 미는 주부도 장애물 없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고,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휴식공간도 많이 설치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 시범거리가 조성되면, 익산시의 대표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지요? 여성이 가장 걷고 싶은 거리. 바로 익산의 거리랍니다!



양성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익산

□ 익산의 주요 사업 여성친화 관점으로 컨설팅!

익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선화 씨는 대한민국 제 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고, 여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공무원이 되고자 해요. 하지만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에요. 선화 씨가 슬퍼해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르쳐주실분 없으신가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컨설팅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의 기본설계단계나 행사 및 축제계획 수립 전에 여성 및 가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지요.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근린공원의 리모델링 공사,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도 이러한 컨설팅이 이루어져 여성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공감이가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여성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한 도시, 바로 익산이기 때문이지요!



□ 양성평등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익산에 사는 선화 씨는 지역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발표하는 사업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지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사업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성들도 참여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자꾸 자꾸 들어요. 조금만 더 시청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선화 씨가 우울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는 익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실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익산시는 정책과 활용되는 재정이 양성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익산 시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선화 씨는 지역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고시 합격은 못했지만 법률 지식은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열심히 뛰고 싶은 선화 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선화 씨! 익산시 여성인재풀에 등록해 보세요. 인재풀에 등록한 여성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책결정과정 여성의 참여를 높여나가고 있어요. 선화씨처럼 전문성 있고 열정적인 분들에게 소문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내일



□ 여성친화도시 파트너, '여친남친', '조성 협의체'

선화 씨는 행정과 손잡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친남친' 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 가입하였어요. 선화 씨 힘으로 우리 마을과 우리익산을 더 좋은 곳으로 보다 살만한 곳으로 바뀌나간다고 생각하니 활동이 재미있어요.

'여친남친'은 '여성친화도시 남다른 친구'라는 시민 참여단이에요. 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통학로를 돌면서 범죄 및 사고로부터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을 찾아내어 표시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지도에서 위험한 공간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시에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 할 계획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함께 작업하고 있는 딸에게 범죄예방 교육을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 위해서 시민, 단체, 기관, 전문가, 기업, 의회 및 행정이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돌봄 분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화 씨는 아이 키우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일상의 요구를 토론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러 모일 수 있고, 행정과 손잡고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정 확대할 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익산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화 씨는 생각하고 있어요.

□ 익산, 그 곳에 살고 싶다

선화 씨는 앞으로 익산이 시민과 함께 여성과 아이들을 배려하는 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계획하고, 노약자 이동이 편리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익산의 미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도를 정비할 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하이힐을 신는 여성과 유모차를 끄는 엄마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 걷고 싶은 도시, 생활권 내에 공원 면적이 충분하여 가족이 건강한 도시,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약자를 돌보는 여성도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익산의 미래를 선화 씨는 꿈꾸고 있어요.

“돌봄과 배려, 그리고 존중 속에 일과 가정 모두가 즐거운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가운데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나아가 여성의 삶을 빛나게 할 도시, 익산”을 꿈꿔요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 길 1(남중동)

TEL. (063) 859-5193, 5194

www.iksan.go.kr/woman_city/

